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2
WINTER
제62호

출입국 브이로그
이민통합지원센터의 VLOG

정책 포커스
하이코리아의 모든 것

출입국 쯤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한국 남편
김철수 & 태국 아내
소티다



KOREA
IMMIGRATION
SERVIC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제4화: 나눔의 가치

작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이웃 사랑

우리는 때로 마주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곤 한다. 그러나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줄어든다. 공감과 공존이 절실한 시대, 동화 <행복한 왕자>를 통해 타인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동화 <행복한 왕자>에서 얻은 깨달음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동화 <행복한 왕자>는 왕자 동상과 그를 돕는 제비가 비참한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이야기이다. 왕자와 제비는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으러 내려온 천사의 인도로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

“신기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내 몸은 지금 무척 훈훈한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행복한 왕자는 이웃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몸에 장식된 보석과 금을 나눠준다. 제비 역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하지만 왕자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웃을 도움으로써 진정한 희생과 나눔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웃을 향한 나눔과 사랑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고개를 돌려 버리면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더욱더 고통받게 된다. 타인을 향한 사랑은 아주 작은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 행복한 왕자처럼 내 몸을 내어주는 희생이 아니더라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고통을 함께 나누면 추운 겨울을 녹이는 불빛이 되어줄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받는 작은 관심은 커다란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돌고 돌아 다시 다른 이를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준다.



공감동화. 마음속 동화를 통해 세계인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지혜를 얻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 산을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였던 단풍물결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칼바람에 몸과 마음 모두 얼어붙는 계절이지만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출입국·외국인정책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과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 더욱 발전된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나뉘드리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관광산업의
빠른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11월 1일부터
무사증입국을 전면 재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 관광지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붐비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해봅니다.

또한 백년대계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11월 7일 신설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선진사례 분석 등을 통해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독자 여러분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ar readers,

Although it seems like yesterday that we were inspired by
the fall splendour with vivid memories of dazzling autumn
mountain scenes with the beauty of the annual cascade of
autumn leaves, winter is already around the corner.

Even though winter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bitter
coldness, I sincerely wish you to enjoy the rest of the year
with your loved ones.

Your kind interest invested in our immigration policies
throughout the year is deeply appreciated.
We are committed to work harder to introduce better
policies next year.

Taking this as an opportunity, we would like to share a
couple of recent accomplishments with you.

We have fully reinstated visa-free entries as of 1 November
to put our tourism industry back on track, which was
ravaged for multiple years due to the Covid pandemic.
We hope this measure will encourage international
tourists to choose Korea as their next international travel
destination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We have also launched a new division –Immigration Policy
Reform Division – on 7 November to adopt a long-term
approach to improving immigration policies. This Division
will spearhead efforts to listen to opinions from all relevant
stakeholders and analyse best practices. These efforts will
be the foundation of establishing an advanced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

Before I finish, I wish you a happy new year and wish you
good health. I also sincerely hope the new year will be
full of hope and achievements as well. We, at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not spare effort to create an
accommodating environment, where Korean nationals and
people from all nations co-exist in harmony.

Thank you.

Contents

2022. WINTER / Vol. 62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1566-7699)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2



COVER STORY

제4화 [나눔의 가치]

02 공감 동화 : 행복한 왕자

추운 겨울이 되면 이웃을 돌보는
손길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동화 <행복한 왕자>를 통해
이웃을 향한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With

함께 만드는 공감

- 06 랜선 여행**
국내 겨울 여행 명소
순백의 황홀함을 찾아 떠나는 여행
- 08 정책 포커스**
외국인을 위한 빠르고 편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의 모든 것
- 14 함께, 행복하게**
사랑에는 국경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태국 출신 아내 소티다
& 한국 출신 남편 김철수
- 18 정책 인사이트**
건전한 체류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 20 출입국 브이로그**
이민통합지원센터의 VLOG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주희림 주무관

ON

서로 통하는 공존

- 24 출입국 쯔인**
소통과 유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28 공존 더하기+**
우리 결의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 30 글로벌 트렌드**
일본에서는 시험 전에 돈가스를 먹는다?
지구촌 시험 징크스 톺아보기
- 32 오늘 뭐하지?**
MZ세대 NEW 트렌드, 필사
- 34 출입국, 그것이 알고 싶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요?
- 35 NO.1 공존人을 소개합니다**
- 36 KIS NEWS**
- 38 EVENT**
공존 공감 & 퀴즈 타임

국내 겨울 여행 명소

순백의 황홀함을 찾아 떠나는 여행

미국의 소설가 겸 여행 작가 폴 서룩스는
“겨울은 회복과 준비의 계절”이라고
말했다. 눈 내린 절경을 바라보며
한 해 동안 나를 어지럽게 만든 상념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복잡했던 마음을
순백의 눈처럼 깨끗하게 정화해줄 특별한
겨울 여행지를 살펴보았다.

강원도 설악산 미시령



1 <겨울왕국> 엘사도 반할 눈의 왕국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약 69만 그루의 자작나무가 조성된 이곳은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겨울에 특히 그 매력이 빛을 발한다. 눈 내리
는 날 커다랗고 새하얀 자작나무 사이에 서 있으면 마치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
분이 든다. 속삭임이 들릴 만큼 조용한 숲이라 하여 ‘속삭
이는 자작나무 숲’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에서 일상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모두 내려놓고, 황홀한 침묵
속에 빠져 보자.

📍 주소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760





2 산꼭대기에서 만나는 겨울 덕유산

덕유산은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지만 산행 초심자에게 알맞은 겨울 여행지이다.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에 내려 600m만 오르면 해발 1,614m에 위치한 최고봉 향적봉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에 찾는 향적봉 일대의 설경은 푸른 하늘과 대비되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단, 등산로에 눈이 많이 쌓이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아이젠을 챙겨가거나 설천봉 매점에서 장비를 대여해서 착용하자.

📍 주소 :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59

3 한국 속의 작은 북극 청송 얼음골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중 하나로, 여름철 자연 상태에서 얼음이 생기는 골짜기다. 거대한 절벽에 흘러내리는 폭포수가 그대로 얼어붙은 모습이 북극의 빙벽을 연상케 한다. 한여름에도 서늘해서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겨울에는 일부러 물을 뿌려서 거대한 빙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 산악인들의 빙벽 훈련장으로 유명해졌고, 각종 아이스클라이밍 대회가 개최되기도 한다.

📍 주소 :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팔각산로 228



4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설경 대관령 삼양목장

드라마 <가을동화>, 영화 <연애소설> 등 각종 영상 촬영지로도 유명한 삼양목장은 11월부터 4월까지의 시기를 화이트 시즌이라고 부르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차로 직접 해발 1,140m 바람의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다. 눈 쌓인 언덕 위에 오르면 시야가 탁 트여 황병산과 오대산, 멀리 강릉 시내와 해변까지 바라볼 수 있다. 동물체험장에서 양, 타조도 만날 수 있어 겨울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 주소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7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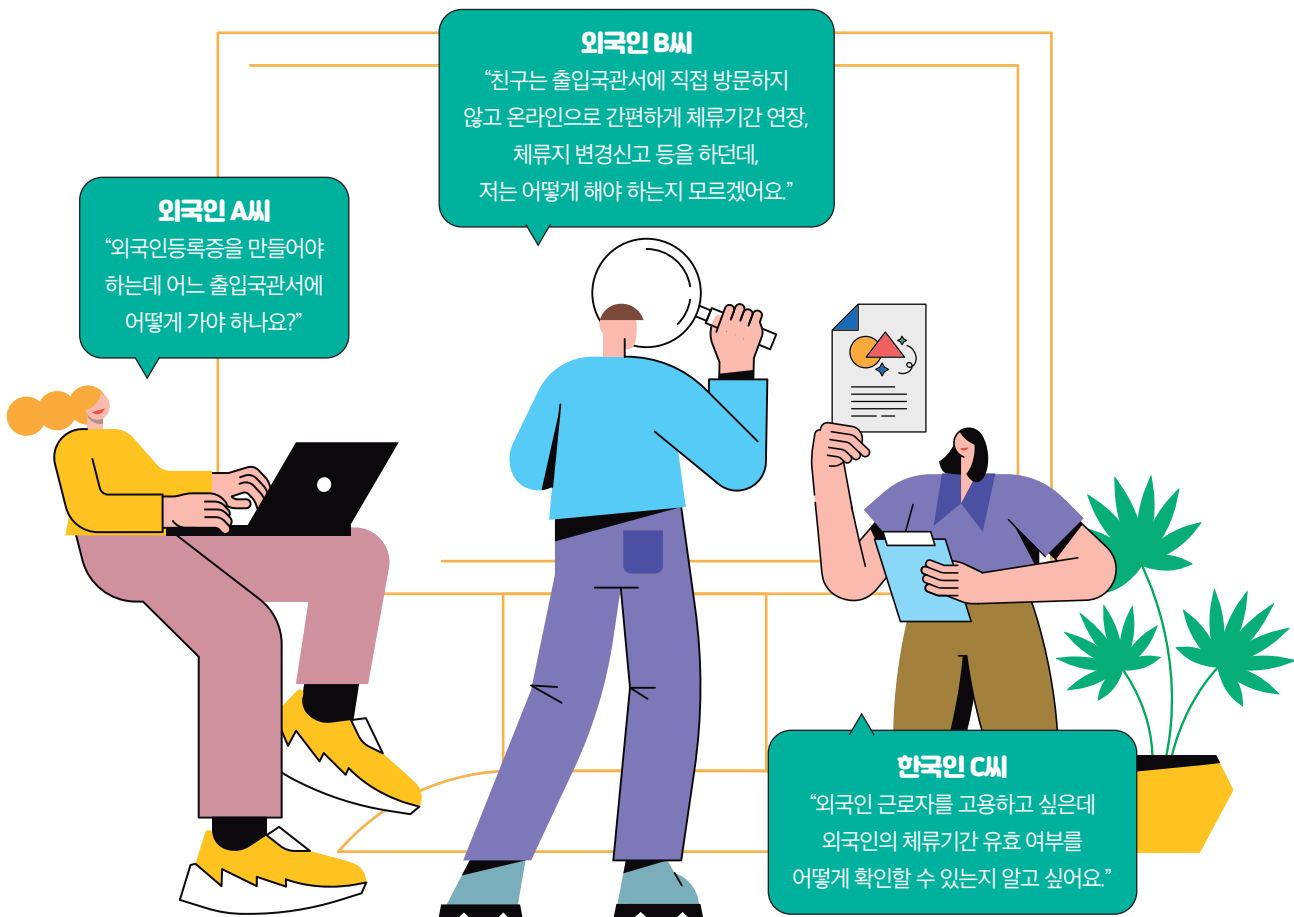
외국인을 위한 빠르고 편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의 모든 것



하이코리아란?

www.hikorea.go.kr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이 필요한 투자, 취업, 거주,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의 대표 사이트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국인들은 취업이나 고용, 비자 변경 등에 대한 각종 출입국 정책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이코리아는 이러한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전자민원 신청은 물론 한국생활 길잡이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세 가지 언어로 서비스되는 하이코리아의 대표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인 약 220만 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문화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 거주, 투자, 유학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필요한 정보도 천차만별인데요. 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하이코리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www.hikorea.go.kr

①

방문예약

방문예약제는 민원인이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 일자와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 없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출입국관리서에서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 중으로, 체류 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사전예약**을 한 후 방문해야 하며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 민원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약방법 (※모바일로도 가능)

①

하이코리아 접속 후
방문예약 신청하기 클릭

③

신청서에 담당기관, 접수창구구분 선택, 방문자 성명 및
전화번호 기입, 방문일자 선택, 방문목적 기재 후 '신청' 클릭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혹은 비회원 인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구비) 후 예약신청

④

방문예약 신청완료 메시지 확인 및 '출력' 클릭
※ 관서 방문 시 출력한 예약확인증 제출

※ 예약 신청일 다음날부터 예약신청이 가능하며(당일 방문 예약 불가), 민원인의 실명으로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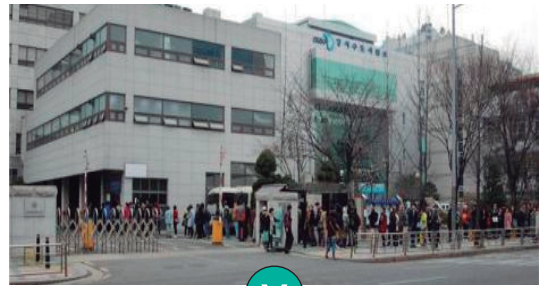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 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 관련 민원

도입 배경 및 효과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기 전, 출입국관서 앞은 업무 개시 전인 새벽 시간대부터 줄을 선 민원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대기번호표 발급 후에도 4시간 이상 대기하거나 번호표 배부가 마감되어 다른 날 다시 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관서 안에 많은 민원인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출입국관서는 지난해 4월부터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예약제를 도입한 이후 민원처리 대기시간이 4시간에서 10분 가량으로 대폭 단축되었으며, 민원혼잡도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문예약제 시행 전 출입국관서 앞에서 장시간 대기 중인 민원인들의 모습



방문예약제 시행 후 혼잡도가 낮아진 출입국관서

알고 나면 쉽고 편리한 방문예약제! 하이코리아에서 간편하게 방문예약을 신청해보세요.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관서에 방문하면 별도로 대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민원

전자민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출입국·체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수수료 20% 인하 혜택도 제공됩니다.

하이코리아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전자민원은 해를 거듭하며 그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민원(체류) : 체류기간연장,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체류자격·거소지 변경 신고, 등록사항변경신고(여권변경) 등
※ 전체 민원목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각종 조회

하이코리아의 대표 기능 세 번째는 각종 조회 기능입니다. 하이코리아에서는 출입국관서나 고용노동부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해 외국인 취업 및 고용 가능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합법 체류자격 여부 ▲취업가능 범위 ▲취업 또는 고용절차 ▲고용변동 신고절차 등의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출입국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에 필요한 관할 관서의 위치 안내,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조회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예약, 전자민원, 조회 기능 외에도 하이코리아에서는 '정보광장'에서 출입국 관련 법령지침정보, 사증, 체류자격 및 입출국 절차 안내 등 출입국 정보는 물론 한국 생활에 유용한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등의 생활편의정보, 외국인 투자 정보 및 투자 상담,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보 등 외국인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격별 신청 대상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정보광장 > 출입국 관련 법령지침정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민원 신청을 위해 출입국관서에 방문하기 전 궁금한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All about HiKorea Website,

A speedy and convenient e-government platform for foreig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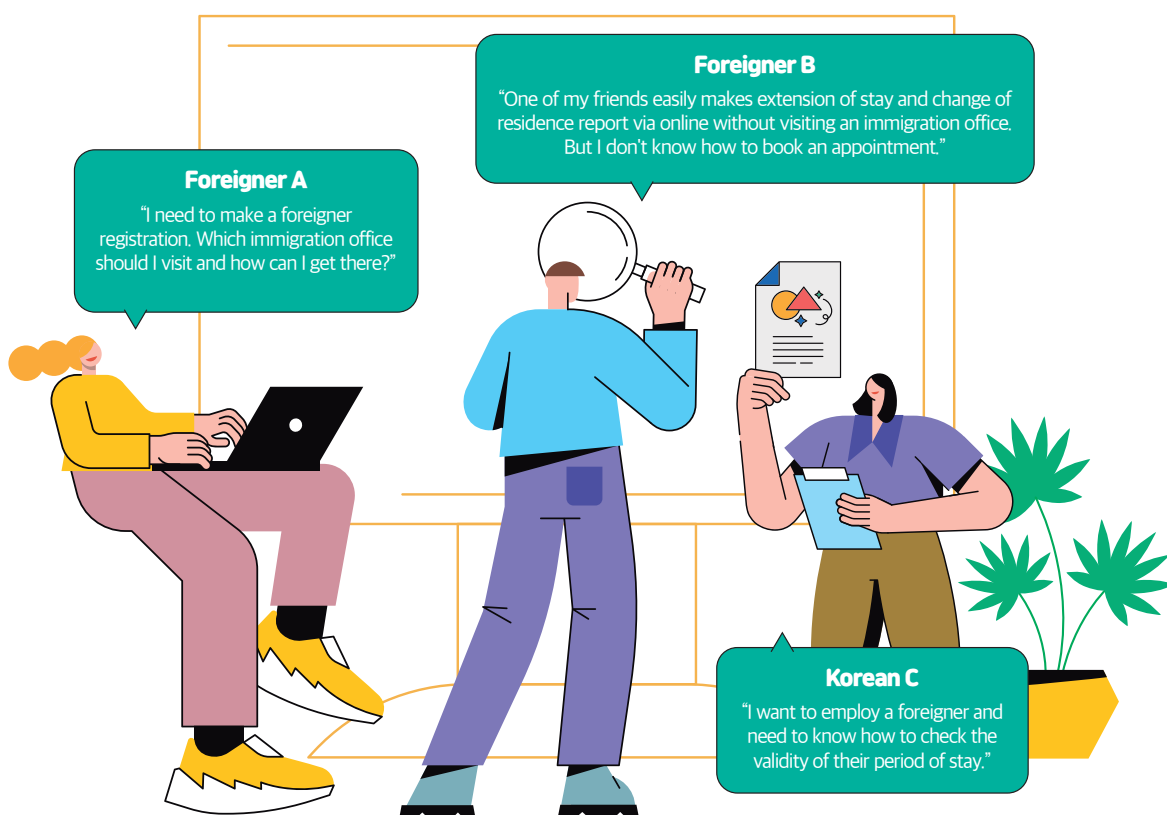
There are around 2.2 million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s of November 2022. As Korea's economic and cultural standing in the world became more prominent, more foreigners are visiting Korea for tourism, residence, investment or studies. As they come here for a wide array of purposes, the information they need know varies as well. Let's find out the details of the HiKorea website, which has been launched to provid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services for foreigners on a single platform.



What is HiKorea?

www.hikorea.go.kr

It is a e-government website serving as a main channel to provide information for foreigners. The website was established by putting together the efforts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provide them with necessary information such as investment, employment, residence, and information needed for the sake of convenience of everyday lives through a single channel.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nd Koreans employing a foreigner need information on various immigration policies such as those on jobs and employment, change of visa status, etc. HiKorea is a website where you can find easy and quick answers for these queries. It provides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not just e-Application services but also guidances of living in Korea. Let's find out key functions HiKorea offers you, which is served in three languages - Korean, English and Chinese.

①

Visit Reservation

The Visit Reservation system allows you to receive civil services at a dedicated desk only for those who made a visit appointment. Those who booked a visit on a specific date and time via HiKoreawill ensure a hassle-free visit at the immigration office in your jurisdiction. 'Visit Reservation' is fully implemented at immigration offices nationwide. So, anyone who wants to receive immigration-related services should make a prior appointment at the website of HiKorea and make the visit. Civil applications are not processed if you visit the immigration office without making a reservation.

How to make an appointment (※ Also available via mobile phone.)

The screenshot shows the HiKorea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Petition Application', 'Information Lookup', 'Smart Entry Service', 'Information sharing corner', and 'News & Announcements'. Below this, there's a banner for 'Announcement of Upcoming Changes related to Visit Reservation'. Underneath the banner, there are four main service buttons: 'Petition Application', 'Smart Entry Service', 'Reserve Visit'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Lodging Registration'. Below these buttons, there are sections for 'My Civil Petition Status' and 'Favorites Services'.

How to use Visit Reservation

How to use Visit Reservation

A visit reservation allows you to arrange a date and time on-line befor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 just as you would reserve a flight/movie ticket or make an appointment with your doctor.

If you make a reservation and visit the immigration office with a receipt, you can file applications with an exclusive counter at the arranged time without waiting.

- Available time for online reservations: 24/7
- Who can use the services: registered HiKorea members only
- One-day advance policy: you should make a reservation at least one day prior to the potential appointment date. Therefore, a reservation made on the appointment day is not effective.
- Reservations for the extension of stay can be made up to 4 months in advance of the expiration date of stay.
- Cancellation of reservations: you can cancel a reservation until the day before the appointment date. (You cannot cancel your reservation on the appointment day.)
- Void reservation: please be advised that if you cancel a reservation, or if you do not make an appearance until five minutes past the arranged time or designate a wrong office or counter, your appointment becomes ineffective.

To reserve a visit, please apply after either ① sign up for membership and log in or ② get a non-member authentication. Reservations for visit can be made using civil petitioner's real name ONLY and should be made for each applicant's personal information. - For administrative agents, please reserve a visit with relevant foreigner's personal information.

When applying by an agent on behalf of 2 persons or more, reservations should be made with each applicant's personal information. - Please print out your receipt, make sure that all the details of the appointment are in order (such as the office, date and time, counter or reservation number, etc.), and present it when you come for the appointment.

Please go to [My e-Applications > Manage e-Applications] to check your reservation or print out a receipt.

①

Visit HiKorea and click Reserve Visit (Apply)

②

Sign up for membership and log in or non-member authentication (requires passport 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card), and then, apply for appointment

The screenshot shows the 'Visit Reservation Application' form. It has two tabs: 'Online reservation' and 'Fill in the application form'. The 'Fill in the application form' tab is active. The form contains several sections: 'Competent Authority' (with a dropdown menu), 'Detailed Search' (with a search bar), 'Booth category' (with radio buttons for different reservation types), 'Booth details' (with a note about counseling), 'Accepted applications' (with a note about booth category), 'Visitor Name' (with a text input field), and 'Phone Number' (with a text input field). A red box highlights the 'Competent Authority' dropdown,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Booth category' section, and a third red box highlights the 'Visitor Name' and 'Phone Number' fields.

The screenshot shows the 'Reservation is completed' message and the 'Registration Receipt' table. The message states: 'Reservation is completed' with a green checkmark icon. Below it, there's a note: 'Please prepare necessary documents before your visit. (Guidance on submissions: Immigration Contact Number 1345)'. Then, it says: 'Print out the receipt below 2023.01.18 16:48 Visit Reservation for Permission to Stay (1F, All countries) [Location:Magok-dong] (from Aug. 1, 2022) (호출 가시만 됩니다.)'. Below this is the 'Registration Receipt' table.

Registration Receipt	
Registration Number	
Competent Authority	Seoul Southern Immigration Office
Booth category	Visit Reservation for Permission to Stay (1F, All countries) [Location:Magok-dong] (from Aug. 1, 2022)
Call No.	97
Visitor Name	
Date of Visit	2023.01.18 (※Please visit 10 minutes early for reserved time.)
Number of Visitors	1

A red box highlights the 'Print' button next to the 'Registration Receipt' table.

③

Click 'Apply' after filling in the application with the office in charge, booth category, name and phone number of visitor, date of visit, and purpose of visit

④

Check the message of completion of the visit reservation and click 'Print'
※ Turn in the printed certificate of visit appointment when visiting the office

※ Your visit needs to be book at least one day in advance. (You cannot book an appointment the same day of making an appointment.) Visit reservation should be made with applicant's real name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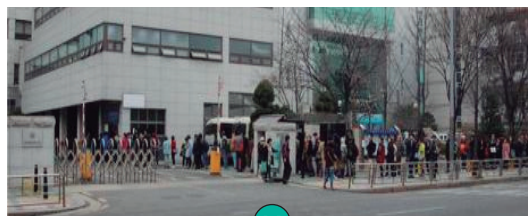
Services applicable for appointment

A variety of immigration-related civil services such as foreigner registration, permission of extension of stay, permission of change of status, grant of status of stay, permission of change of workplace, various reports, etc.

Background and effect of introduction

Before the visit reserv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mmigration offices were overcrowded with civil service applicants lined up in front of the gate from dawn - hours ahead of the official opening hour. Visitors had to endure lots of inconveniences, including waiting for more than four hours to be served by an immigration officer even after securing a waiting number ticket. Some of them even have to revisit the office on another day as the distribution waiting number tickets can be closed ear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re also was high concern of the potential spread of the virus due to the heavy crowd in the office.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all the immigration offices in the country are now implementing the visit reservation system as of April last year to resolve the visitors' inconveniences of long waits and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visit reservation system, waiting time has remarkably reduced to around 10 minutes from 4 hours, while the crowdedness was minimized to help us prevent the spread of contagious diseases.

People waiting for a long time in front of an immigration office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visit reservation system.



Much less crowded immigration off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visit reservation system.

Visit Reservation, an easy and convenient system once you know how to use!

Reserve your visit conveniently at HiKorea. You can process your applications at your desired time and date, which removes the hassle of long waits.

②

E-Application Services

E-Application is an electronic civil service that allows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to apply online regarding immigration and residence matters. It does not require a visit to a jurisdictional immigration (branch) office and even provides a 20% discount on fees. The e-Application service has become one of the main services of HiKorea and more users take advantage of this service every year.

Services available via e-Application are as follows(Stay) : Extension of stay, extension of stay for departure, change of workplace, report on change of residence, report on change of registration matters (change of passport), etc.

※ A full list of services available can be found at the website of HiKorea (Petition Application > e-Application services).

③

Various inquiries

The third key function of the HiKorea website is inquiry services. HiKorea provides useful information such as ▲ legal stay status, ▲ scope of employment, ▲ procedure of work or employment, ▲ procedure to report employment change, etc. so that foreign workers and employers can easily make an inquiry on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employment eligibility without visiting the immigration office o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addition, it allows users to run a search to find immigration agents that are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those people who want to make an application through an agent, including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and lawyers without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The site also provides a variety of other information that is needed during foreigners' stay in Korea such as the location of a jurisdictional immigration office, validity of residence card and/or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medical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etc.

We have not learned the three key functions offered by the HiKorea website. HiKorea provides a variety of information that foreigners need. It has the functions of visit reservation, e-Application and inquiry services. HiKorea also provide information that may be useful for your everyday lives, including information on residence, transportation, education, medical care, culture and tourism. The site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at the 'Information sharing corner' section on foreign investment, consulting and employment permit system as well as the information relating to immigration laws and regulations, immigration guide, visa, status of stay and procedures of entry and departure. Going further, it provides a guide manual by each status of stay to help foreigners to understand eligibility and requir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Information sharing corner >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immigration). As such, visitors can find out the necessary information needed prior to visiting his/her local immigration office for their civil services. Any queries you encounter while using the service may be directed to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at 1345.



사랑에는 국경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태국 출신 아내 소티다 & 한국 출신 남편 김철수



누군가 그랬던가. 사랑에는 국경도, 두려움도 없는 법이라고. 그동안 너무 흔해서 스치듯 지나쳤던 이 말이 문득 다시 떠오른 건, 태국 출신 소티다와 한국 출신 김철수의 사랑 이야기를 방송에서 접하게 되면서였다. 오직 사랑 하나만 보고 두려움 없이 한국행을 택한 소티다, 그리고 그런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의 알콩달콩한 일상을 살아가는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들이 운영하는 태국요리 전문점을 찾아갔다.

운명 같은 태국에서의 만남

태국에서 태어나 자란 소티다. 태국의 명문대학교까지 나온 그녀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태국지사를 다니며 남부러운 것 없는 커리어우먼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건 2016년, 태국의 한 식당에서 지금의 남편 김철수 씨(이하 철수)를 만나게 되면서였다.

“당시 저는 클라이언트들과 식사 중이었는데, 한 남자가 다짜고 짜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저는 정중히 거절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 한국 사람이었더라고요.”

태국에서만 살아온 소티다에게 한국은, 자기 삶에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낯선 나라였다. 반면 철수에게 태국은 낯선 나라가 아니었다. 이미 2007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 활동

을 통해 태국을 접했기 때문이다. 철수는 소티다를 처음 만난 순간을 회상했다.

“당시 저는 태권도와 관련된 봉사로 2년 동안 태국에 머물렀습니다. 봉사가 끝난 뒤 귀국을 하면서, 그동안 익혀 온 태국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산외대 태국어과에 편입해 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아예 태국에 머물며 다양한 일을 하던 중 운명처럼 소티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식당에서 처음 소티다를 만났을 당시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다는 남편 철수. 소티다는 그의 적극적인 공세에 결국 연락처를 주게 됐고, 한 달 정도 연락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오직 사랑 하나만 보고 선택한 한국행

약 1년여간의 교제를 이어가며 철수의 등직함과 자상함에 폭 빠져버린 소티다는 결혼 이후 한국에 들어가서 살자는 그의 제안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승낙했다. 사랑하는 남편 철수와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티다와 철수는 둘 다 '여행'과 '음식'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한국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 물론, 소티다와 철수의 결혼은 그들의 생각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철수 부모님의 반대였다.

“당시 저희 어머니의 반대가 더 심했습니다. 같은 국적의 며느리를 맞이해도 힘든 판국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태국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소티다의 부모님 역시 애지중지 키워온 딸을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홀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에 반대하셨고요.”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우려가 있었지만, 서로 깊이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그런 난관은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철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기회가 될 때마다 차근차근 소티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시작했다. 태국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던 소티다가 자신과의 결혼을 위해 모든

우려가 있었지만,
서로 깊이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그런 난관은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것을 내려놓고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 소티다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자 굳게 닫혀있었던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쉽지 않던 한국에서의 생활, 사랑으로 뛰어넘다

결국 부모님의 승낙을 얻어 2017년부터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게 된 소티다와 철수.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당시 소티다는 철수가 지점장으로 일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기 시작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은 탓에 온종일 설거지만 전담한 것이다. 게다가 시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크고 작은 오해가 쌓이기도 했다고.



“한국에 오고 한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매일 같이 울었어요. 제가 태국에서 해왔던 일들과 전혀 다른 일이기도 했고, 언어가 안 통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어학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실력이 차츰 늘어나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홀에서 서빙하기도 했고, 요리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다. 시어머니는 태국에서 힘들게 시집살이하는 소티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주기 시작했고, 소티다는 그런 시어머니를 ‘엄마’라 부르며 친딸처럼 따르기 시작한 것이다.

소티다와 철수가 출연한 방송에서 시어머니의 다소 엄한 모습이 부각됐지만, 지금은 셋째 아이를 임신한 소티다를 위해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직접 도시락을 싸줄 정도로 화목하게 지낸다고 한다. 단지 사랑 하나만으로 국경을 뛰어넘은 것처럼, 한국 사람 간에도 쉽지 않은 고부간의 어려움 역시 또 다른 사랑으로 뛰어넘은 것이다.

아무리 자상한 남편,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시부모님이 있다 하더라도 태국에서의 생활이 마냥 쉽기만 할까. 그래서 가끔 자신



이 살아왔던 태국이 그리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철수는 현재 운영하는 태국요리 전문점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창업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온 소티다의 향수병을 태국요리 전문점을 통해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태국 사람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철수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태국 현지에서도 한국요리 전문점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식당을 열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태국을 오고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이 멀어질 것만은 않을 것이다. 이제 막 걷고 말하기 시작한 자녀들을 키우며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할 난관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포부를 밝히는 소티다, 철수 부부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의지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말이다.

건전한 체류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배경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한 상태로 국내에 머무르는 행위는 불법체류에 해당되며, 불법체류는 대개 불법취업으로 이어져 각종 법적 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의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을 돕는 브로커 등 체류질서를 저해하는 출입국사범 단속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여 이들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별자진출국제도

법무부는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

시행 기간	2022. 11. 7. (월) ~ 2023. 2. 28. (화)
대상자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 이후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됨
제외 대상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혜택	기간 내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해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신고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및 홈페이지(www.hikorea.go.kr) 확인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rogram implemented for illegal foreign nationals to minimise overstayers in the country

What made us to implement this programme?

Foreigners legally staying in Korea are eligible to enjoy legal protection in line with his/her residential status during the authorised period of stay in Korea. A failure to leave the country after his/her visa expires or engaging in activities not authorised in his/her type of residential status are key elements triggering illegal stay. Illegally staying in the country mostly lead to illegal employment, which typically result in illegal residents to face multiple legal consequences for their act. Being fully aware of this problem, the Ministry of Justice is investing efforts to conduct crackdown operations targeting illegal residents and immigration offenders, including illegal brokers who entice illegal resident to illegally enter the country or be illegally employed.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is committed to supporting illegal residents t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We have introduced voluntary departure programmes and illegal residents taking advantage of these programmes can enjoy multiple benefits. They are eligible for fine exemptions, suspending of entry restrictions.



We have introduced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rogramme

The Covid pandemic has resulted in a great reduction or a suspension of international flight operations. This situation has resulted in illegal residents facing difficulties in returning to their country of origin. Considering this exceptional situation, we have decided to introduce a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rogram for illegal residents effective from 20 November 7 2022 to 28 February 2023. Illegal residents who do not leave the country voluntarily or if they are apprehended by officers during this period, they will be subject to a fine up to KRW 30 million and more strict entry restrictions. The Ministry will continue on its efforts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does not tolerate unlawful practices linked with illegal residency by minimising the size of illegal residents through implementing strict measures.

Information on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rogramme

Effective	7 November 2022 - 28 February 2023
Eligible persons	All foreigners in illegal status who depart Korea voluntarily ※ Foreign residents whose status become illegal after 7 November are NOT eligible for taking advantage of the programme
Exceptions	Those who have illegally crossed the border into Korea; those who have used a forged or altered passport; criminal offenders; those who have violated quarantine guidelines and those who have disobeyed (a) departure order(s) are NOT eligible to take advantage of the programme.
Benefits	Illegal residents voluntarily leaving the country between 7 November 2020 and 28 February 2023 can enjoy fine exemptions and a suspension of entry restrictions. ※ Fine exemptions are also granted to illegal residents who accompany (a) minor(s) under 17 when voluntarily leaving the country. ※ A voluntary departure shall be applied pursuant to the current "Preliminary Declaration of Voluntary Departure." → Preliminary declaration must be made at least three business days (excl. public holidays) prior to departure.

※ Please reach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or visit the HiKorea website(www.hikorea.go.kr) for more information.



이민통합지원센터의 VLOG

220만 외국인과 공존하는 사회를 위하여!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주희림 주무관



이민통합지원센터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20만 명에 달한다(2022년 11월 기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환경 조성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이민통합지원센터는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어울려 살아가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울산 관내 이민자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위해 힘쓰는 주희림 주무관을 만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하루를 따라가본다.





AM 9:00 좋은 아침입니다!



AM 9:00

좋은 아침입니다

이민통합지원센터는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9 to 6를 따르고 있지만, 한 주에도 몇 차례씩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국적 수여식 등의 행사가 있어 매일 일과가 다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들어가 이민통합지원센터의 하루를 만나보실까요?



AM 10:00

긴급 업무 확인 및 일정 체크

오전에는 긴급한 업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 및 행사 스케줄을 체크합니다. 오늘은 준비 시민교육 강의가 진행되는 날이네요.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 등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M 10:00
긴급 업무 확인 및 일정 체크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국적 수여식 등의 행사로 매일 일과가 다릅니다.”

V-log



AM 11:00 교육 사전 준비



AM 11:00

교육 사전 준비

교육은 외부 강사가 진행하지만 강사 섭외부터 강의 실 확인, 자료 준비, 교육생 인원 확인, 교육 보고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니 종종 물리적으로 힘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시기에는 업무량이 많아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M 12:00 즐거운 점심시간



PM 12:00

즐거운 점심시간

기다리던 점심시간이네요. 식사는 외부에서 하고 오거나 도시락을 싸 와서 휴게실에서 먹곤 합니다. 타 팀 직원들과도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 팀은 편안하고 수평적인 분위기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라 더욱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PM 1:00

행사 진행 관련 유선 협업

최근 울산에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위한 교육, 의료, 복지 등 지원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출입국 투어가 예정되어 있어 담당자와 유선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을 듣고 한국어가 늘었다며 기뻐하던 모습은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일하며 가장 뿌듯한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PM 1:00 행사 진행 관련 유선 협업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PM 2:00 준법 시민교육 시작



PM 2:00

준법 시민교육 시작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법 시민교육은 거주 및 영주 자격 신청자 가운데 경미한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를 안내하는 교육입니다. 매 시간마다 수강 인원을 체크해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민통합지원센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협업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소통력과 중재력은 필수입니다.



PM 5:00

교육 종료 및 보고

준법 시민교육이 끝난 후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 보고까지 마치면 오늘 할 일은 모두 끝납니다. 뒤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이민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대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다들 좋은 분들이라고 느낍니다. 이분들이 한국사회에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PM 6:00

행복한 퇴근

내일 진행될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출입국 투어 준비를 미리 마쳐놓고 퇴근합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취소됐던 행사들을 최근에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또 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여줄 때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민자들과의 공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통합지원센터의 하루를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림 주무관의 한마디

“이민자를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늘 새롭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의 이민통합지원센터와도 많이 교류하며 새로 발생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유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역사의 고장이자 전라북도 행정·문화·관광의 중심지인 전주에는
전북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있다. 효율적인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와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떠나본다.



방문 전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
방문예약제를 시행 중입니다



민원실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북권역 출입국 행정서비스의 중심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전주사무소)는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 전라북도 5개 시와 8개 군을 관할하며 체류 업무, 사증 발급, 국적 업무, 조사 업무, 출입국관리법 관련 사범처리,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등 폭넓은 출입국 관리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익산역에 위치한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군산출장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관할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은 약 3만여 명(2022년 11월 기준)으로 1998년 개소 당시보다 9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주사무소 직원도 3배 충원되어 현재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루 평균 100~150명 정도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만큼 민원실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방문 전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주사무소의 경우 지역 특성상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아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다. 그래서 왕복 3~4시간 이상 걸려 찾아온 민원인이 방문예약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난감한 상황에서도 전주사무소 직원들은 차분하고 친절함 태도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사 이전 수요 급증

전주사무소의 현 청사는 전주역과 가까워 교통편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사 내 공간 부족과 시설 미비로 인해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개소 이후 24년 동안 민원인과 직원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이민자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사 내에 민원인이 대기할 휴게공간이 협소한 것은 물론 구조적 한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어 보행 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따른다. 공간이 부족해 당직실 일부 공간을 수유실, 여직원 휴게실, 탈의실,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공동 사용하는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적지 않다. 청사가 전반적으로 노후화한 탓에 누수, 침수, 벽체 균열 등 문제가 잦아 직원들이 주말에 급히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전주사무소는 현재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도 청사 수급 관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주사무소 강성환 소장의 끊임없는 열정으로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심의 중에 있다.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민원인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실천하는 지역 사랑

전국 모든 출입국관서가 지역사회와 이민자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주사무소의 열의는 특히 남다르다. 매년 수차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봉사와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사무소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 행사, 마스크 나눔 행사, 관내 유학생 장학금 전달 행사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장기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고향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전주사무소와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 직원의 마음이 모여 봉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전주사무소는 지역사회를 돕는 봉사와 기부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렇듯 앞장서서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전주사무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한 선교사를 도운 일화를 꼽았다. 지역에서 소외 아동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가 보다 다양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주최·심의회 매장일치로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전주사무소는 향후에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3년 전주사무소가 새롭게 써 내릴 훈훈한 이야기들이 벌써 기다려진다.



Chief INTERVIEW

“체류질서 확립에 힘쓰며 지역사회를 돕는 전주사무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성환 소장

전북 지역을 관할하는 전주사무소는 전반적인 출입국 관리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내 결혼이민자 가정 에 응원과 희망을 전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전주사무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우리 사무소의 자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OOOOO 이다”



친절함

모든 직원들이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장착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응대하기 때문입니다.

• 이재령 계장



한마음

어려운 일도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직원분들
덕에 든든합니다!

• 송소림 반장

화목함

서로 챙겨주고
솔선수범하는 화목한
분위기가 전주사무소의
자랑입니다.

• 송보라 반장



단합력 최고

직원들 사이가 좋고
소통이 원활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 이의연 반장



우리 곁의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집에 들어가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곁을 지켜주는 반려동물. 누군가에게는 길 위의 이웃, 또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가족인 동물은 사람과 똑같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동물보호에 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말을 하지 못할 뿐 동물도 사람처럼 즐거움이나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세계 각 나라의 문화와 정책을 살펴보고, 동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세계의 반려문화 이모저모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생활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많아지면서 개, 고양이 등 동물들을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펫팸족(Pet+Family)’이 급증하고 있다. 가까이 두고 귀여워한다는 의미의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핀다는 뜻의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기인했다.

반려문화가 일찍 발달한 외국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수가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은 미국에는 반려동물 전용 또는 동반이 가능한 서비스가 많은데, 반려동물 전용 음식점이나 카페, 영화관부터 동물만 탑승할 수 있는 항공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도그 워킹(dog walking)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려

문화 중 하나로 바쁜 반려인을 대신해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는 서비스다. 이 때문에 공원이나 길에서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도그 워커를 흔히 볼 수 있다.

스웨덴은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병들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펫 보험을 1924년 세계 최초로 개설했고, 일본에는 반려인이 먼저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을 위탁할 사람에게 일정 비용을 전달하는 펫신탁이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혼 소송 시 판사가 부부 중 누구에게 반려동물 양육권을 줄지 판단하기도 한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추모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화장 후 납골당에 봉안하거나 수목장을 하는 등 가족이 원하는 방식이나 각 나라의 문화에 맞춰 장례를 진행한다. 국내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전용 장묘업체 65곳이 운영되고 있다.



세계의 동물복지

| 독일 |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독일은 매매를 통한 반려동물 입양을 엄격히 금지하며, 모든 지역에서 반려견 보유세를 징수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다.

| 이탈리아 |

원형 어항에서 키우는 금붕어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시력을 잃을 위험이 있어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 반려묘의 꼬리나 발톱을 자르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 스위스 |

기니피그, 앵무새 등 무리 지어 사는 동물을 최소 1쌍 이상 길러야 하며 단독으로 키울 수 없다. 2018년에는 바닷가재가 통증을 느낄 수 있어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 노르웨이 |

반려견을 하루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산책시켜야 하며 어길 시 동물 학대로 간주된다. 노르웨이는 동물 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이 있을 만큼 동물 학대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숙한 반려문화의 첫걸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유실·유기된 동물은 12만여 마리다. 불가피하게 가족처럼 아끼던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이웃과의 갈등, 이사, 결혼 등을 이유로 유기하거나 파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동물 학대 못지않게 동물 유기도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유기동물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6만 마리로 감축하기 위하여 지난 6일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초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 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 교육도 들을 수 있다.

반려동물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도울 수도 있다. 헌 이불이나 방석, 무료담요 등을 보호센터에 기부하면 겨울철 동물들을 위한 난방용품으로 사

용할 수 있다. 또 해외에 출국할 일이 있을 때, 해외 입양이 결정된 유기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탑승해 입양자에게 인계하는 이동 봉사도 출입국 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 되고 따로 비용도 들지 않는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은 곧 약자를 대우하는 방식과 같으며, 약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잘 갖춰진 나라야말로 선진국이라는 의미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다.



일본에서는 시험 전에 돈가스를 먹는다?

JINX

지구촌 시험 징크스 톺아보기

한국인들은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 먹는 것을 피한다. 표면이 미끌미끌한 미역을 먹으면 시험에서도 미끄러진다는, 즉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거나 불합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좋은 것은 가까이, 그렇지 않은 것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은 세계인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입을 비롯해 각종 고시로 수험가가 한창 뜨거운 지금, 시험과 관련된 세계 여러 나라의 징크스를 살펴본다.

Singapore



싱가포르

집중력 강화에는 닭 육수

싱가포르 학생들은 시험 공부 중이거나 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에 닭 육수를 마신다. 닭 육수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외에 말레이시아와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 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닭 육수를 먹는다고 한다.



Japan

일본

돈가스와 초콜릿 과자 먹기



일본 수험생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돈가스를 먹는다. 이는 돈가스의 일본식 표현인 '카츠'가 '이긴다'는 뜻의 일본어와 발음이 같아서 생긴 징크스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스위스 모 브랜드의 초콜릿 과자를 수험생끼리 주고받기도 한다. 이 브랜드 이름을 일본식으로 읽었을 때의 발음이 일본어 '반드시 이긴다'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대입시험 기간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을 알게 된 해당 브랜드가 수험생 응원 마케팅을 펼치면서, 초콜릿 과자가 일본의 인기 있는 수험생 선물로 자리잡았다.



세르비아

뒤에서 물 흘리기

Serbia

세르비아에서는 수험생의 뒤에 물을 흘리는 행위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한다. 물이 몸을 따라 흐르듯 시험에 합격하라는 의미다. 물을 흘리는 행위는 세르비아를 비롯한 발칸반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상대방의 행운을 빌어주기 위해 행했던 미신이라고 한다. 시험뿐만 아니라 중요한 면접을 앞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대방의 뒤통에 물을 흘려주기도 한다.



Viet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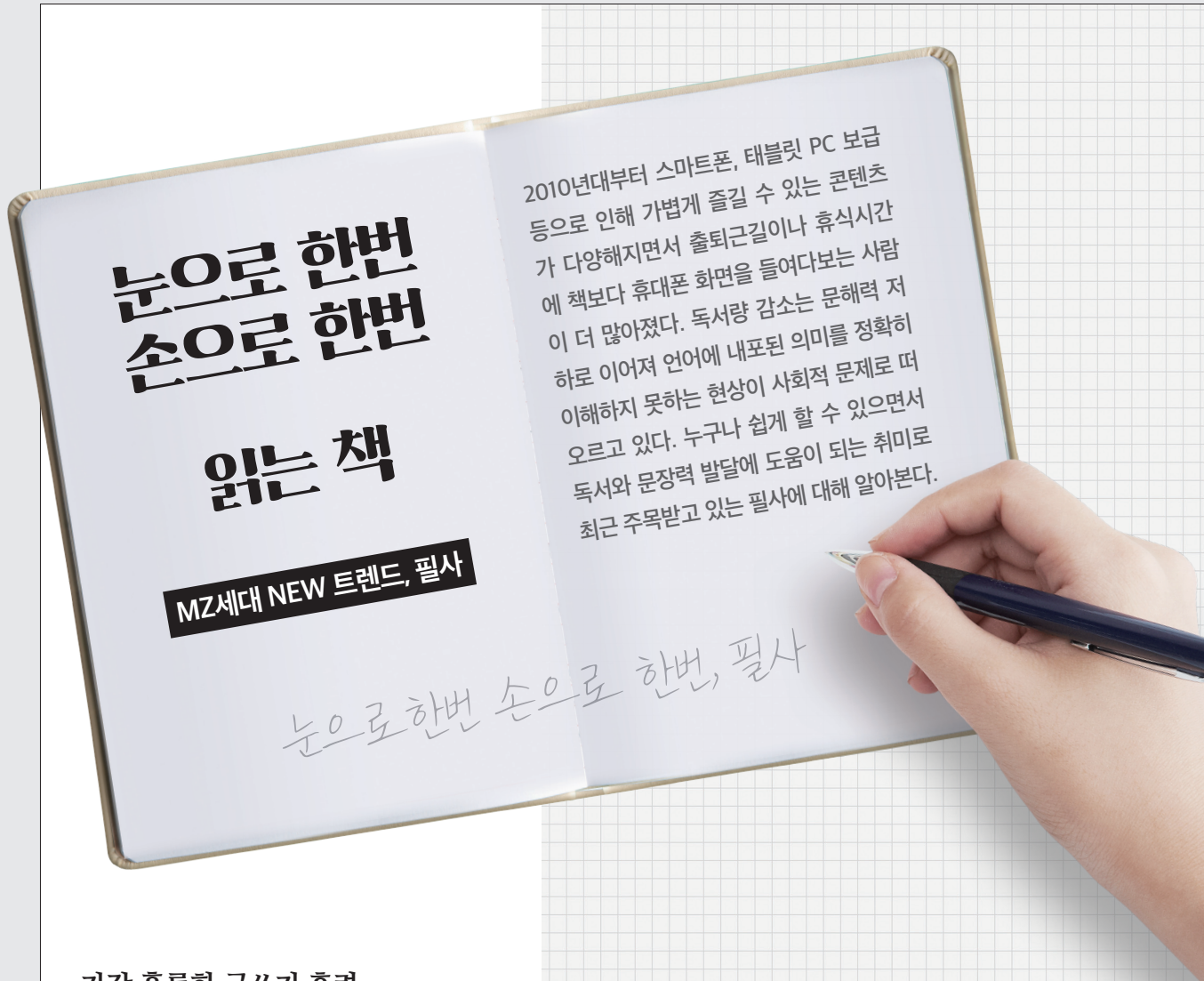
베트남

달걀·면·땅콩·호박·바나나는 금물

베트남에는 수험생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관련한 징크스가 많다. 먼저 생김새가 둥근 달걀은 '0점'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먹지 않으며, 국수와 같은 면류 역시 숫자 '1'을 떠올리게 해서 시험기간에 피하는 음식으로 꼽힌다.

땅콩은 '낙제'를 뜻하는 베트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호박은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표현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바나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미끄러진다'는 의미가 있어 수험생들이 꺼리는 음식이라고 한다.





가장 훌륭한 글쓰기 훈련

필사는 말 그대로 베껴 쓴다는 뜻으로, 인쇄술 발달 이전에는 책을 제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었다. 눈부신 기술 발달을 이룩한 지금 필사는 인쇄나 책 제작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 성취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단과 방법에 사람에 따라 달라서 소설이나 시, 성경 등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베껴 쓰는가 하면 인상 깊었던 구절만 뽑아서 기록하기도 한다.

필사에는 여러 장점이 많은데 첫째로는 문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국내외 수많은 작가들 또한 필사를 하며 필력을 쌓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비딕>을 쓴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200번 이상 필사했고, 작가 조정래 또한 “필사는 정독 중의 정독”이라며 자녀에게 본인이 집필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필사를 권했다는 사실도 유명하다.

필사는 단순히 베껴 쓰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작품을 한 글자씩 따라 써보는 과정을 통해 글의 흐름과 숨겨진 문맥을 파악해 작가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표현 방식을 습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좋은 글을 모방하는 과정은 성취감과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사고력이 확장하는 계기도 된다.

떠오르는 힐링 취미

최근 '갓생'(신(god)+인생(生), 부지런한 삶을 의미하는 신조어) 살기에 진심인 MZ세대 사이에서 필사는 심신 안정에 도움 되는 취미로 떠오르고 있다. 책에 몰입해 손을 움직임으로써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되고, 그림의 미학을 느끼며 좋은 글을 따라 쓰면서 위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취미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나 경제적 부담도 덜하다. 종이에 한 자 한 자 옮겨 적다 보면 글씨체를 교정하는 효과도 있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경우 평소 좋아하던 외어나 드라마, 영화 대사 등을 꾸준히 필사하다 보면 외국어 실력도 향상할 수 있다.

필사에는 종이에 직접 적는 손글씨와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타이핑 등의 방법이 있다. 타이핑의 경우 입력이 간편하며 나중에 필요한 문장을 찾기도 유용하지만 첫 입문자라면 손글씨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 문장씩 음미하면서 글의 구조를 익히기에 더 좋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타이핑 필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타자 연습처럼 속도감 있게 타이핑하기보다는 어절마다 끊어 입력하면서 글을 곱씹어보면 된다.

필사를 할 때는 책을 한 번 완독해서 글의 흐름과 맥락을 미리 파악한 후 옮겨 적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발 나아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짧은 감상문을 덧붙인다면 더욱 좋다.

필사 초보를 위한 tip!

필사하기 좋은 책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필사책의 바이블
로 꼽히는 윤동

주 시인의 유고시집으로, 아름다운 문체와 청년 윤동주의 고뇌가 담겼다. 윤동주 시집의 필사책은 시중에 다양하게 출간되어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생전에 필사의
중요성을 강조했

던 헤밍웨이의 대표작이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전. 작가 특유의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가 돋보인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소로가 되는
시간

소로의 생태주의
수필 <월든> 가

윤대 명문장만 골라 수록한 책이다. 단순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실천한 소로의 정신이 아름다운 문장 속에 깃들여 있다.

간편한 온라인 필사



타이핑웍스

랜덤으로 나타나는 책 속 문장을 그대로 타이핑할 수 있는 필사 사이트. 직관적인 UI와 문장의 출처를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북모리

독서 기록 앱으로, 읽은 책과 독서 시간, 인상 깊은 구절 등을 기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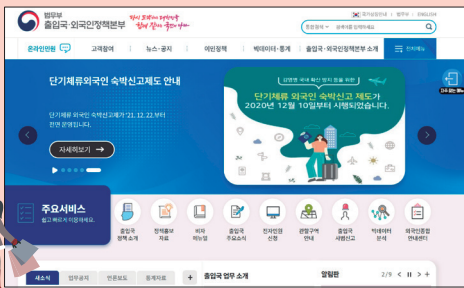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카카오톡·페이스북·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책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출입국 소식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표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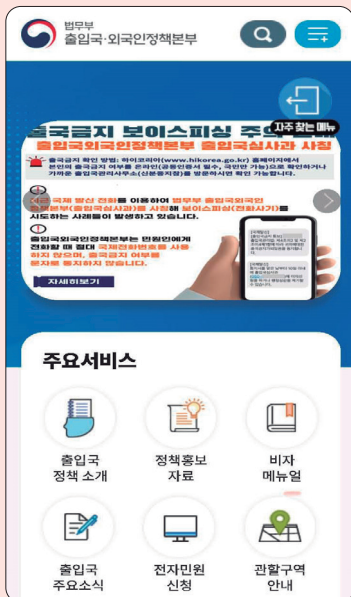
출입국 소식을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곳은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되는 대표 홈페이지에서는 보도자료, 홍보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제도 소개, 출입국통계,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상시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책메일 서비스를 운영하여, 유용한 정보들을 이메일로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메일서비스신청방법

- 1 본부 홈페이지 접속
- 2 고객 참여
- 3 정책메일 서비스 신청



출입국·외국인정책소식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곳!

follow me

SNS 플랫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에서도
출입국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와 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가득한
SNS 채널을 구독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종 정책·제도와 행사 소식을 만나보세요!

f 페이스북



@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카카오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o.1 공존인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업무에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공감인들.
공감인들이 민원인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고, 자신 있어 하는 공감 노하우를 소개한다.

이해와 효율로
원활한 문제해결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김정현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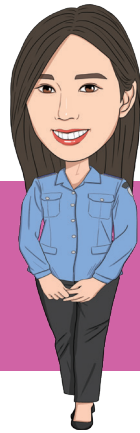
김정현 주무관님은 제가 업무차 천안출장소에 방문할 때 마다 친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줍니다. 바쁜 와중에도 친절함을 잃지 않으면서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김정현 주무관님 덕분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 윤○○ 씨

공감 노하우

저의 공감 노하우는 '이해와 효율'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안내할 때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쁜 민원인이 시간과 동선을 절약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런 저의 진심을 알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눈맞춤이 만드는
이해와 공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

배지원 주무관

저는 한국에 온 지 7년 된 베트남 유학생입니다. 한국 생활 중 비자 변경을 위한 서류 준비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 이번에 비자 변경을 위해 구미출장소를 방문했을 때 배지원 주무관님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방문 전 많이 긴장했었는데 주무관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NGUTEN ○○○ 씨

공감 노하우

저의 공감 노하우는 '민원인의 시선에 맞춘 정보 전달'입니다. 업무 특성상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민원인이 많고, 해외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낯설고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출장소에는 저보다 더 친절한 직원분들이 많은데 제가 칭찬받게 되어 쑥스럽습니다.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KIS NEWS

1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신설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11월 7일에 신설하고, 11월 18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동시에 선진 사례 분석 및 연구,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운영 종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국내 정착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합동지원단이 10월 31일 운영을 종료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지난해 8월 말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우리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의료·취업지원을 비롯해 법령 정비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 왔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후에는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을 중심으로 1:1 멘토링 등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정부합동지원단 운영 종료 이후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일반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부 이민통합과에서 정착 현황 모니터링,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검토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3

외국인범죄 감소 위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14일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어서고,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토론 내용은 △비자·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 방지 △불법체류 단속팀 상시 운영 △자진출국 유도 활성화 등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방안과 불법취업 방지 방안이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4

출입국·이민정책 자문기구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

11월 25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민정책위원회는 2011년부터 운영된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위원회로, 이민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이날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공론화 추진 경과 등을 청취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향후 출입국·이민정책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이민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자문 및 정책 제언을 검토 및 반영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5

공정성 강화 위한 「난민 이의신청 지침」 제정·시행

법무부가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10월 11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에 규정해 왔지만,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이의신청 당사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공개함으로써 난민 이의신청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VENT #1

독자 의견

2022년 <공존> 겨울호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글이나 흥미로웠던 콘텐츠가 있다면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2년 12월 19일(월) ~ 2023년 1월 6일(금)

-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물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경품 이벤트 다양한 독자 의견을 주신 분 중 10명을 선정해 뚜레주르 교환권(2만 원)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3년 1월 10일(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 #2

퀴즈 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이름,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를 적어 이메일 또는 아래 QR코드를 접속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 전라북도 권역의 출입국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기부 활동을 펼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어디일까요?

- | | |
|----------------|------------------|
| 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②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 ③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④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보내실 곳 아래 QR 코드 참여

정답 마감 2023년 1월 6일(금)

문의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2110-4019)



빠르고 간편한 독자퀴즈 참여 방법

왼쪽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소식지에 관한 다양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시행기간

'22. 11. 7.(월) ~ '23. 2. 28.(화)

대상자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 시행일('22. 11. 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문 의

-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참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